

# 프롤로그 모의고사

## 해설지

빠른 정답

문항 번호	정답	배점	문항 번호	정답	배점
1	③	2	11	③	2
2	⑤	3	12	⑤	3
3	⑤	2	13	⑤	2
4	①	2	14	①	3
5	③	3	15	④	3
6	①	3	16	②	2
7	③	2	17	⑤	2
8	④	2	18	②	3
9	④	3	19	①	2
10	②	3	20	②	3

## 정답과 해설

### 1번

출제 의도: 메타윤리학과 기술윤리학의 특징 비교

답: ③

해설:

(가)는 메타윤리학, (나)는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 ① 응용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 ② 규범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 ③ 기술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응용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 ⑤ 메타 윤리학에 대한 설명이다.

### 2번

출제 의도: 칸트의 의무론의 입장에서 벤담의 공리주의 비판

답: ⑤

해설:

갑은 칸트, 을은 벤담이다. 칸트는 오직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만이 그 자체로 가치가 있다고 보았다. 벤담은 쾌락과 고통의 결과를 도덕 판단의 척도로 보았으며 쾌락을 계산할 때 양적차이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 ① 칸트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우연히 의무에 맞더라도, 그것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가 아니라면 도덕적 가치가 없다.
- ② 공동체가 개인의 삶에 도덕적 특수성을 부여한다는 주장은 덕 윤리 사상가 매킨타이어의 입장이다.
- ③ 칸트와 벤담 모두가 부정할 입장이다. 칸트는 개인의 행복증진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될 수 없다고 보았고, 벤담은 어떤 행위가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더라도 사회 전체의 행복이 하락한다면 도덕적이지 않다고 보았다.
- ④ 쾌락을 계산할 때 쾌락의 양과 질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밀의 입장이다.
- ⑤ 칸트는 벤담과 달리 도덕성을 판단할 때 결과보다 동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적절한 반론이 될 수 있다.

### 3번

출제 의도: 해외 원조에 대한 롤스와 싱어의 주장 이해

답: ⑤

해설:

갑은 롤스, 을은 싱어의 입장이다. 롤스는 고통받는 사회에 대한 원조를 통해 그 사회가 자유와 평등이 보장된 질서정연한 사회가 되도록 돕는 것을 원조의 목적으로 보았다.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 원칙에 따라 지구촌의 빈곤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해외 원조를 해야한다고 보았다.

① 롤스는 모든 인류의 복지 수준 향상이 원조의 목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② 온정적 간섭주의란 선 증진을 위해 타국(타인)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강제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롤스는 질서정연한 빈곤국에 대한 원조의 중단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원조의 주체가 되는 사회는 온정적 간섭주의를 발휘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수능특강 179p 8번 문제 읽어보세요:))

③ 싱어는 원조의 목적이 모든 사회의 경제적 수준을 동등하게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④ 싱어는 원조할 여유를 지닌 사람들만이 원조의 의무를 가진다고 본다.

⑤ 롤스 역시 국제 사회의 빈곤한 사람들의 고통을 감소시켜야 함을 지지한다. 다만 롤스는 원조의 중단점이 존재하며, 고통받는 사회의 처지가 개선되는 것은 물질적 원조 때문이 아니라고 본다. 싱어는 절대 빈곤 해결이 해외 원조의 목적이라고 본다.

#### 4번

출제 의도: 정보 사유론과 정보 공유론의 비교

답: ①

해설:

갑은 정보 사유론, 을은 정부 공유론에 대한 입장이다.

X:정보 생산자의 지적 재산을 강조하는 것은 정보 사유론의 입장이다.

Y:정보 격차의 완화를 강조하는 것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Z: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은 정보 공유론의 입장이다.

순서대로 낮음, 높음, 높음에 해당하는 보기는 ㉠이다.

#### 5번

출제 의도: 동물 실험 찬반론 이해

답: ③

해설: 갑은 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동물 실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을은 의료기술 개발 과정에서 동물 실험이 필수적이지 않다고 본다.

#### 6번

출제 의도: 하이데거의 거주에 대한 입장 이해

답: ①

해설:

제시문은 하이데거의 입장이다. 하이데거는 거주함이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을 점유하는 것이 아니라 죽을 자로서의 인간이 세계 안에 존재하는 방식이고, 이를 통해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공간에 대한 책임을 가지면서 자신의 실존적 삶을 돌보게 된다고 보았다.

- ① 하이데거는 인간이 거주함을 통해 자신의 본질을 실현한다고 보았다.
- ② 하이데거는 거주함이란 죽을 자로서의 인간이 자신의 존재 의미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하이데거는 인간은 거주함으로써 실존적이고 본래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④ 하이데거는 건축함이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고 보았다.
- ⑤ 하이데거는 진정한 거주함은 공간을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의 성장을 돌보고 거주 공간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7번

출제 의도: 칸트와 베카리아의 사형 찬반론 이해

답: ③

해설:

갑은 칸트, 을은 베카리아의 입장이다. 칸트는 사형이 살인자의 인격성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베카리아는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이 더 효과적인 억제책이라고 보았다.

ㄱ. 칸트는 살인자의 생명권은 보호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ㄴ. 칸트는 범죄자가 형벌을 의욕했기 때문이 아닌 범죄를 의욕했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라고 보았다.

ㄷ. 베카리아는 공리주의적 입장에 따라 형벌로 얻는 공공의 이익이 형벌이 초래할 해악보다 커야한다고 보았다.

ㄹ. 칸트와 베카리아는 모두 형벌이 공적 정의의 실현을 위한 수단이라고 보았다.

8번

출제 의도: 니부어의 사회 윤리 이해

답: ④

해설:

제시문은 니부어의 입장이다. 니부어는 개인의 이기적인 성향이 집단 속에서 강화되어 나타나며, 개인과 집단 간에는 지속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① 니부어는 집단을 단순한 개인의 집합체로 보지 않았다. 따라서 개인 간에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는 집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② 니부어는 집단 간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강제력이 사용될 때 선의지의 통제를 받아야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선의지가 불필요하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③ 니부어는 개인과 사회의 도덕적 이상 사이에 지속적인 모순이 존재한다고 보았으나, 이들 사이의 모순이 절대적이라고 보지 않았다.

④ 니부어는 사회 정의 실현에 있어 폭력적인 방법이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다.

⑤ 니부어는 집단의 규모가 커지면 오히려 집단의 이기심을 통제하기 어려워진다고 보았다.

9번

출제 의도: 롤스의 시민불복종에 대한 이해

답: ④

해설: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롤스이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법에 대한 충실성 내에서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ㄱ. 롤스는 기본적 자유의 원칙이나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을 침해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 아닌 한 차등의 원칙의 위반은 시민불복종에 의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ㄴ. 롤스는 시민불복종이 합법적인 호소가 성공하지 못한 경우에 행해지는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보았다.

ㄷ. 롤스는 시민 불복종 과정에서 비폭력적인 수단만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C가 다수의 정의감에 호소하지 못한 이유는 시민 불복종이 비폭력적이어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념이 아닌 개인의 양심에 근거하였기 때문이다.

ㄹ. 롤스는 시민 불복종이 개인의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이 아닌 다수의 정의감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10번

출제 의도: 기업의 적극적 책임 찬반론

답: ②

해설:

갑은 기업의 적극적 책임을 반대하는 입장이고, 을은 기업의 적극적 책임을 찬성하는 입장이다.

ㄱ. 갑은 기업이 시장의 질서를 존중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사회적 책임을 가진다고 본다.

ㄴ. 갑은 기업이 주주들의 이익 증진을 위한 책임을 지닌다고 본다.

ㄷ. 을은 기업이 이윤 창출과 무관하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공선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본다.

ㄹ. 갑, 을은 모두 기업이 자유 시장 체제의 원리에 따라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본다.

11번

출제 의도: 칸트, 테일러, 레오폴드의 자연관 비교

답: ③

해설:

갑은 칸트, 을은 테일러, 병은 레오폴드의 입장이다. 칸트는 인간만이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고, 이성이 없는 동물들에 대해서는 간접적인 의무만을 가진다고 보았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은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서 내재적 가치를 가지므로 이들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인간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고 인간과 자연을 포괄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ㄱ. 칸트가 지지하지 않을 내용이다. 칸트는 이성을 가진 존재인 인간만을 도덕적으로 고려

해야 한다고 보았다.

ㄴ. 테일러와 레오폴드 모두 지지할 내용이다. 테일러는 인간이 다른 생명체와 함께 지구 생명 공동체를 구성하는 일원이며, 본질적으로 다른 생명체보다 우월하지 않다고 보았다. 레오폴드는 인간이 상호 의존적인 부분들로 이루어진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보았다.

ㄷ. 테일러가 지지할 내용이다. 테일러는 보상적 정의의 의무에 따라 인간이 다른 생명체에 해를 입혔을 경우 마땅히 보상해주어야 한다고 보았다.

ㄹ. 레오폴드가 지지할 내용이다. 레오폴드는 개체로서의 생명의 가치보다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을 중시하였다.

## 12번

출제 의도: 요나스의 책임윤리 이해

답: ⑤

해설:

제시문은 요나스의 책임윤리에 대한 내용이다. 요나스는 전통적인 윤리관에서 벗어나 과학 기술의 발달이 가져올 디스토피아적 미래를 예견하고 책임의 범위를 미래 세대와 자연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① 요나스는 인간이 의도한 결과뿐만 아니라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 대해서도 책임을 가진다고 보았다.

② 요나스는 미래와 자연에 대한 현세대의 일방적 책임을 강조한다.

③ 요나스는 과학 기술이 가져올 희망이 보다는 불행한 예언에 주목하여 공포의 발견술을 통해 미래 세대에 닥칠 위험을 예방해야 한다고 보았다.

④ 요나스는 칸트의 정언 명령을 변형하여 “너의 행위의 결과가 미래에 지구상에서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파괴하지 않도록 행위 하라.”라는 생태학적 정언 명령을 제시하였다.

⑤ 요나스는 모든 생명체가 자신의 고유한 목적을 가지기 때문에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 13번

출제 의도: 플라톤과 순자의 직업윤리 비교

답: ⑤

해설:

갑은 플라톤, 을은 순자의 입장이다.

플라톤은 타고난 성향에 따라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로 계층을 나누고 각자의 덕을 잘 발휘해야 사회가 정의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다.

순자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이익을 좋아하고 힘든 일을 꺼려하기 때문에 다툼이 생긴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禮)를 통해 적성과 능력에 따라 역할을 분담하여 공동체의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ㄱ. 플라톤은 계층이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타고난 성향에 따라 정해져야 하며, 역할의 자유로운 교환은 혼란을 가져온다고 보았다.

ㄴ. 플라톤은 통치자의 부패를 막기 위해 그들의 사적 소유를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ㄷ. 순자는 직업 선택에서 타고난 신분보다 개인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순자는 예와 합치한다면 타고난 신분과 관계없이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ㄹ. 플라톤과 순자 모두 분업을 통해 사회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14번

출제 의도: 묵자의 비악(非樂) 이해

답: ①

해설:

제시문은 묵자의 입장이다. 묵자는 음악이 재물과 노동력을 낭비하고 생산 활동을 방해하여 민생을 위협하기 때문에 금지해야 한다고 보았다. 해당 내용은 평가원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으나 수능특강에 소개되어있고, 미리 내용을 숙지하지 않았더라도 독해로 충분히 유추해 낼 수 있는 문제이다.

15번

출제 의도: 홉스와 로크의 사회계약설 비교

답: ④

해설:

갑은 홉스, 을은 로크의 입장이다. 홉스는 이기적인 인간의 본성 때문에 자연 상태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보존하기 힘들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계약을 통해 국가를 형성하였고, 국가는 이기적인 인간들을 통제하기 위해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다. 로크는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자유롭고 평화롭지만, 잠재적 위협으로부터 자연권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을 통해 국가를 구성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로크는 국가의 권위는 계약의 내용을 잘 이행할 경우에만 보장된다고 보았다.

ㄱ. 홉스가 긍정할 설명이다. 홉스는 자연 상태는 전쟁 상태이며 만인의 만인에 의한 투쟁 상태라고 보았다.

ㄴ. 로크가 긍정할 설명이다. 로크는 계약의 내용을 지키지 않은 국가에 대해 시민은 저항할 수 있다고 보았다.

ㄷ.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설명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자연적 본성에 의해 구성된 공동체라고 보았다.

ㄹ. 홉스가 긍정할 설명이다. 홉스는 인민이 계약을 통해 주권을 지배자에게 양도한다고 보았다.

16번

출제 의도: 롤스, 노직, 왈처의 분배정의 이해

답: ②

해설:

잡은 롤스, 을은 노직, 병은 왈처의 입장이다.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도출하기 위해 우연성이 배제된 가상적 상황을 제시하였으며, 이 가상적 상황에서 도출된 정의의 원칙은 최소 수혜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노직은 개인의 정당한 소유물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소유권리가 부여된다고 보았으며,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정의를 교정하는 최소국가를 지향하였다. 왈처는 다양한 영역의 가치가 다양한 기준에 의해 분배되어야 하며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에 의해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① 롤스는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부정의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 ② 노직은 롤스와 달리 타고난 우연적 요소들을 개인의 자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노직이 롤스에게 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이다.
- ③ 왈처는 사회적 가치들이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름으로써 복합평등이 실현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 ④ 노직은 개인의 노동이 투입되었더라도 취득과 이전의 과정이 정당하지 못했다면 소유권은 박탈된다고 본다. 따라서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 ⑤ 왈처는 공동체의 역사적·문화적 맥락에 따라 사회적 가치들이 상이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올바른 비판이 아니다.

### 17번

출제 의도: 프롬의 사랑의 기술 이해

답: ⑤

해설:

가상 편지는 에리히 프롬의 입장이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온전한 인격적 관계에서 형성되며,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고 능동적으로 책임을 지는 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았다.

- ①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받는 것이 아닌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②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을 소유하는 것이 아닌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 ③ 프롬은 고통을 감수하고 스스로를 희생하는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고 보았다.
- ④ 프롬은 진정한 사랑이란 상대방의 성장에 관심을 가지는 능동적인 활동이라고 보았다.
- ⑤ 프롬은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책임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았다.

### 18번

출제 의도: 참여 예술론과 순수 예술론 비교

답: ②

해설:

잡은 순수 예술론, 을은 참여 예술론의 입장이다. 잡은 예술은 정치적인 요소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며, 외재적인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은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본다. 을은



예술이 사회 변혁의 수단으로써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고 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본다.

ㄱ. 순수 예술론은 예술이 현실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ㄴ. 순수 예술론은 예술이 정치적 영역과 결합하는 것은 예술의 자율성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한다.

ㄷ. 참여 예술론은 예술이 현실의 모순을 고발하는 외재적 수단으로써 기능할 수 있다고 본다.

ㄹ. 순수 예술론에만 해당되는 입장이다.

## 19번

출제 의도: 갈통의 진정한 평화 이해

답: ①

해설:

제시문은 평화주의자 갈통의 입장이다. 갈통은 전쟁이나 테러와 같은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뿐만 아니라 문화적 폭력까지 제거된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보았다.

① 갈통은 전쟁과 같은 직접적 폭력뿐만 아니라 구조적 폭력과 문화적 폭력이 제거된 상태를 진정한 평화라고 보았다.

② 갈통은 인권 보장을 위해 모든 전쟁이 종식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갈통은 인권을 침해하는 사회제도나 관습이 직접적이고 구조적인 폭력을 용인하기 때문에 제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④ 갈통은 문화적 폭력이 직접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을 정당화 한다고 보았다.

⑤ 갈통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적극적 평화의 실현을 강조하면서 안보의 개념을 국가 안보 차원에서 인간 안보 차원으로 확장하였다.

## 20번

출제 의도: 올바른 통일에 대한 이해

답: ②

해설:

해당 칼럼은 독일의 통일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체제의 통일을 넘어 내면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함을 강조한다.